

** 한국 전통공간디자인의 도상해석학적 접근에 관한 연구

- 지역적 원형과 창조적 환상의 개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conological Approach of the Korean Traditional Space Design

- Focusing on Regional Prototype and Creative Fantasy -

박경애* / Park, Kyung-Ae

Abstract

Korean space design image is a kind of writing as well as one of the sign that dissembles itself as a direct transcript of what it represents. Moreover it is pictorial representation and notions such as mental and perceptual imaginary. Significance of Iconology lies in how we transform image and the imagination that produces it into power of trust and respect.

From this point of view, the process of this study is illustrated as follows:

At first, this study search out concept of archetype, collective unconsciousness and collective representation that found principles on basic theory for interpretation of korean space icon.

Secondly, it mentions theoretical background of iconological contents and structure. And it clarifies Iconology as a method that is applicable logic for Korean space design.

Finally, as an analysis of korean space design, this study analyse in three steps that are pre-iconological description, iconological analysis, iconological interpretation each in terms of modernization at regional korean space design. In the step of the pre-iconological description, it describe visual representative style based on era and place. In the step of the iconological analysis, the typical structure is classified in status, vernacular, ethnic, traditional. In the step of the iconological interpretation, connotation is categorized into allegory, multivalence, potential.

Through this process, this study suggest that iconology is an appropriate analysis system of Korean space design images that represent symbols combined with our collective emotion.

키워드 : 한국 전통공간디자인, 도상해석학, 지역적 원형, 창조적 환상

Keywords : Korean Traditional Space Design, Iconology, Regional Archetype, Creative Fantasy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공간은 집단의 생존방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그에 관한 구성원리, 조직방식, 세부적 원칙 등이 구조화되어 왔으며, 해석 작업을 통하여 재창조되고 의미가 부여되어 왔다.

하나의 작품은 저자로부터 그 의도가 독자에게 수용·해석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할 수 있다. 해석학은 인식의 근거, 역사적

존재, 의미의 원천으로서 선험적 주체를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해석학의 작업은 그 표상이 내포하고 드러내는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표상이 사용된 맥락적 상황과 구체적 지향점은 무엇인가를 구조적으로 탐구하는 것이다. 사물의 정체성을 확립·인식하는 것은 그것으로 하여금 의미대상이 되도록 하는 입력과 해석의 의미생성체계에 의해 규정된다.

본 연구는 현대공간디자인에서 전통표현의 수용해석학적 과정으로서, 텍스트 또는 이미지의 표상과 해석체계를 도상해석학에 의해 논한다. 전통공간디자인의 시각적 근거를 도상의 형태 및 공간구성원리와 상징작용에서 찾아 '前도상적 기술', '도상학적 분석', 그리고 '도상학적 해석'으로 범주화하여 한국성 수용방식의 기원을 밝히고자 한다.

* 정희원, 국민대학교 환경디자인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디자인학박사
** 이 논문은 2005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5-050-G00003)

의미작용은 정신적 개념을 사물에 부여하거나 또는 사물로부터 정신적 개념을 해독해 내는 일이다. 이러한 관점을 전통 공간디자인에 도입하면, 전도상적 기술의 단계로부터 도상해석학적 분석의 단계로 침투한다는 것은 전통공간의 단순 형태적 모사가 아닌 공간성의 재해석에 따른 추상적 개념을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하는 양상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전통공간의 현대적 수용에 있어 전도상적 기술단계에서 도상학적 해석단계로 이행되는 담론을 도상해석학¹⁾ 이론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기함으로써, 지역적 전통표현의 현대적 접근은 표층적인 것에서 심층적 단계로 어떻게 심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방향을 고찰하고 전통 공간디자인의 설계방식과 해석방식에 대한 시각을 도상해석학을 통해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전통공간디자인은 다양한 계층적, 시대적, 장소적 체험의 질을 포괄함으로써 각각의 다른 상황을 통해 차별화된 미적 체험의 질을 창조한다. 파노프스키의 도상해석학의 세 범주에 걸친 분석을 통하여 작품해석의 통찰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있어,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호의 한 측면으로서 도상의 원형과 도상이 기호로 기능하는 바탕인 집단적 무의식과 집단표상, 그리고 창조적 환상의 개념을 살펴본다.

둘째, 도상해석학의 이론적 배경을 밝히고, 도상해석학의 내용과 구조를 공간디자인에 도입할 수 있도록 공간적 차원의 적용논리를 마련한다.

셋째, 한국 전통공간디자인의 도상해석학적 분석으로서, 한국 전통공간의 현대적 변용을 위한 지역적 차원의 디자인연구라는 측면에서 각각 전도상적 기술, 도상학적 분석, 도상학적 해석을 시도한다. 전도상적 기술에서는 시대 및 장소에 입각한 시각적 표현양식과 그 조형적 측면에 대하여 기술한다. 도상학적 분석에서는 도상의 유형을 풍토성, 민속성, 전통성의 세 가지로 범주화한다. 도상학적 해석에서는 '의미 중첩성(공시적·통시적 다의성)'의 시각에서 우의성, 이위성, 잠재성 세 가지 관점에서 다룸으로써 텍스트의 다중적 의미관계 중심으로 전개한다.

분석대상²⁾에 있어서는 호텔³⁾은 도시 아이덴티티를 마케팅

으로 연결시켜 효과적인 컨셉의 차별화를 유도할 수 있는 종합 문화상품이라는 전체에서, 한국의 지역적 공간디자인프로그램을 수용하고 있는 세 유형의 한국형 호텔인 포도호텔, 라궁, 인터콘티넨탈호텔을 그 대상으로 선정한다.

2. 도상해석학의 이론적 배경

2.1. 원형과 창조적 환상

창조에 관련된 주관적 자아의식은 무의식적인 집단의 주 특성, 또는 원형에 좌우된다.⁴⁾ 집단적 무의식은 초개인적 성질을 지닌 보편적인 정신의 토대로서 고대로부터 존재해온 보편적 像이다. 반면 집단표상은 특수하게 변화된 형태의 원형으로서 그것은 더 이상 무의식적 내용이 아니며 전통적인 가르침으로 이미 의식적 공식으로 변한 것이다. 즉 근원적으로 무의식에서 유래하는 집단적 내용을 전달하는 전형적인 표현이다.⁵⁾

집단적 무의식은 밀폐된 개인적 체계가 아니라 그것은 집단적인 비개인적 특성을 지닌 정신세계로서 넓게 열려있는 객관성이다. 이러한 집단적 무의식은 개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되는 것이다. 집단적 무의식은 선재하는 틀들, 즉 원형으로 형식화되며 그것들은 이차적인 차원으로 의식될 수 있고 의식내용에 뚜렷한 관념을 부여하는 것이다.⁶⁾ 융(C. G. Jung)에 의하면 무의식은 원초적인 개념으로 예술가의 창조력에 직접 관련한다.

원형의 요소는 '미리 형식을 만드는 능력'으로 선천적으로 주어진 관념형식의 가능성이다. 원형은 변하지 않는 의미의 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항상 원초적으로 작용하며,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양식을 결코 결정하지 않는다.⁷⁾ 이러한 원형들은 종족에 고유하다는 점에서 '원초적 상들'이며 집단 정신활동의 특수한 형식으로서, 그러한 특수한 방식은 이미 처음부터 유전질 속에 있다. 정신적인 모든 것은 미리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의 개별적인 기능들, 특히 무의식에서 직접 유래된 기능에 속하는 것은 무엇보다 '창조적 환상'이다. 환상의 산물 속에서는 '원형'의 개념을 볼 수 있다.⁸⁾ 따라서 환상의 단편들은 이른바 컨텍스트에 따라 살펴보아야 한다.

창조적 환상이란 일련의 형식들을 의도적인 변형으로 현재

1) 도상해석학은 텍스트의 서술적 의미체계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제시하는 메시지나 상징을 파악해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작품의 문화적 배경과 숨겨진 의도라는 1차 의미 이상의 '의미의 층'을 파악하는 것으로 이에는 종합적 직관이 요구된다.

2) 전통에 대한 논의에서 전통은 60-70년대에는 서구와는 반대되는 논리로 선언과 명분의 성격인 직설적 재정경향이었던 반면, 1980년대 후반 이후로는 창작과 미학의 논리로서 '한국성'이라는 개념에 신주관주의, 다원주의 경향이 부가되면서 동일한 가치 내의 보완·연속적 관계를 갖는 사고체계로 변화하였다. 여기에서 다원주의란 각 지역문화 단위의 특징이 가미된 복층문화를 의미한다. 임석재, 한국현대건축비평, 예경,

1998, p.235 참조,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상해석학적 관점의 디자인 개념이 발생한 시기가 80년대 후반이라는 전제로, 연구대상은 80년대 후반 이후 지역성을 프로그램화한 공간에서 선정한다.

3) 호텔은 그 시대의 생활문화가 한때 어우러진 삶의 공간이며, 사회문화적 소프트웨어를 함축하는 디자인콘텐츠가 최고수준으로 집약된 라이프스타일의 아이콘이라는 측면에서 연구대상공간으로 설정한다.

4) C.G. 융, 원형과 무의식, 숲, 2002, p.85 참조

5) Ibid., p.107 참조

6) Ibid., p.157 참조

7) Ibid., p.201 참조

8) Ibid., p.199 참조

화하는 것이다. 환상은 원형의 변형과 생성과정을 통해 창조된 일종의 재현체계이자 상징체계의 이미지이며 경험의 주관적 측면으로서 예술표현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자 결과이다. 이것은 과거의 경험과 지각을 바탕으로 미분화된 무의식적 개념이나 사상이 새로운 결합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상은 능동적이고 개성적인 현실의 변용작용으로 의식화된 상징작용을 전제로 하며 객관화되어야 할 정신적 움직임은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전통은 원형을 통해 유추하고 상상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사실과 상상력 사이에서 석화된 역사를 문화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창조적 환상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2.2. 도상해석학의 내용 및 구조

도상학(Iconography)과 도상해석학(Iconology)은 시각예술 현상을 기호체계로 파악하고 해독하는 이론이다. 특히 파노프스키(Erwin Panofsky)의 도상해석학⁹⁾은 예술작품의 '문화사적 의미'를 탐구하는 영역으로, 작품의 시각적 표현으로부터 포괄적인 사회역사적 해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작품해석에 있어 철학, 인류학, 민족학, 심리학 등을 연계하여 전체적이고 보편적인 발전과정의 맥락을 조명하는 논리구조를 제공해준다. 따라서 도상해석학은 미술사적 언어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의 학제적 작업에 근거한 의미 분석의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표 1> 파노프스키의 도상해석학의 구조

해석 대상 (Object of Interpretation)	해석 행위 (Act of Interpretation)	해석 도구 (Equipment for Interpretation)	해석 원리 (Corrective Principle of Interpretation)
I. 1차적 또는 자연적 주제 (A)사실적 (B)표현적·예술적 모티브의 세계를 구성	전 도상적 기술 (Pre-iconographical description)	실제적 경험 (대상과 표상의 유사성)	양식의 역사 (변화하는 역사적 조건 하에, 형태에 의해 표현된 사물과 사건 속에 내재한 태도의 성찰)
II. 2차적 또는 관습적 주제 :이미지의 세계, 유추의 세계를 구성	도상학적 분석 (Iconographical analysis)	개념적 원천의 지식 (특정주제와 개념을 포함한 지식)	유형의 역사 (변화하는 역사적 조건 하에, 사물과 사건에 의해 표현된 특정 주제나 개념적 태도 속에 내재한 태도의 성찰)
III. 내적의미 또는 내용 :상징적 가치의 세계를 구성하는 내용	도상학적 해석 (Iconological interpretation)	개별적 심리에 의해 조건화된 종합적 직관 (인간 정신의 본질적 경향을 포함한 규약성)	상징의 역사 (변화하는 역사적 조건 하에, 특수주제에 의해 표현된 인간정신의 본질적 경향 속에 내재한 태도의 성찰)

9)파노프스키는 도상해석학을 작품에서 형태 이상의 주제나 의미를 다루는 분야로 정의하였다. 그는 작품을 역사적인 컨텍스트에 위치시킴으로써 '시대의지'의 영향 아래 내재된 의미와 사상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도상학을 도상해석학으로 발전시켰다. 도상학이 단순히 이미지와 컨텍스트 간의 관계를 기술하는데 머무는 것에 반해, 도상해석학은 적용된 테마의 일정한 표현이 바로 이 시점, 이 장소, 이 조건에서 왜 출현했는가라는 점을 '해명'하는 데까지, 즉 부여된 도상으로부터 거기에 형성화된 깊은 내적 의미를 해명하려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므로 도상해석학은 도상의 분석보다는 종합에 의해 변주 내지 작품 전체의 의미내용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미진, 도상해석학의 문제: 파노프스키와 제들마이어의 이론을 중심으로, 미술사학2, 미술사학회, 1990, pp.172-177참조

파노프스키는 예술작품의 내용해석을 세 단계로 구분한다. 첫 번째 단계는 작품을 처음 대할 때의 1차적 느낌을 기술하는 과정으로 실제적 경험으로 이루어진 '현상의미'의 이해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작품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특정의 '주제의미'를 다루는 단계이며, 세 번째 단계는 앞의 두 단계를 포괄하는 '본질의미'의 영역으로 작품의 정신적 의미를 형태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단계이다. 파노프스키는 이 세 단계를 각각 前 도상적 기술, 도상학적 분석, 그리고 도상학적 해석이라 부른다.

피어스(C. S. Peirce)의 기호학에서는 하나의 표상이 그 무엇과 닮아서 그 대상의 기호로 사용되는 한에 있어서 그것을 '도상'이라고 말한다. 즉 도상은 유사성을 바탕으로 다분히 재현적인 것이어서 대상의 대응 또는 대치물이 되기에 적합하고, 그것과 비슷한 정서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특히 피어스는 정신적인 이미지에 대해 정신적 도상(mental ic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¹⁰⁾ 따라서 도상은 다른 형식의 기호에 비해 등질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도상해석학의 관점에서의 도상은 그것이 놓인 컨텍스트와 위상에 의해 해석에 열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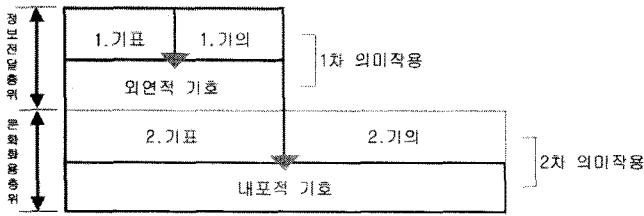
물리적 대상에 관한 지식을 얻는 세 과정의 수단을 감각, 지각, 인지라고 한다. 감각이란 자극에 대한 정서적 효과 그 자체를 의미하며, 지각이란 대상으로부터 인간의 마음에 이미지를 인각하는 의미작용을 말하는 것이며, 인식이란 마음에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의미작용으로 개념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언어학적으로 하나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해석됨으로써 성립되는 의미작용은 의미생성과정으로서 이는 지시의미(denotation)와 함축의미(connotation)로 구분된다.

지시의미란 기호 내 기표와 기의 사이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1차적 의미로서, 기호의 상식적이고 명백한 의미가 이루어지는 단계이며 객관적으로 표현되고 지각되는 차원이다. 하지만 의미작용은 지시단계에서 창조된 1차 의미를 기표로 하는 2차적 의미작용의 단계를 거치면서 내포적 의미를 갖게 된다.¹¹⁾ 함축의미의 차원은 내재적 의미차원으로서 이는 개인이나 문화에 따라 달리 인식되는 자의성의 차원이다.

기표는 보는 사람의 문화적 배경과 체험에 따라 각기 다른 함축의미들을 일으킨다. 의미는 고정된 실체의 의미가 아니라 위치와 위상(position)에 관련된다. 그러므로 순수한 구조공간 속에 있는 장소(place)는 사물이나 현실적 존재보다 인식에서 선행한다. 의미는 위상 속에 주어진 요소들의 결합에 따라, 그리고 장소의 결합에 따라 여러 개의 의미가 중첩해서 나올 수

10)Y.바진, 현대예술철학의 흐름, 오병남·윤자정 역, 예전사, 1996, p.269, p.270, p.282 참조

11)Pierre Guiraud, Semiology, translated by George Gross. London : Routledge & K. Paul, 1975, pp.27-28, 1단계 의미작용 차원에서의 지시의미가 2단계 의미작용 차원의 기표가 되어 새로운 기의를 형성함으로써 2차적 의미가 발생한다.



<그림 1> 1차 의미작용과 2차 의미작용

있다. 이것을 '다원결정'이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¹²⁾

따라서 도상해석학을 표현형식이 일으키는 예술적·미학적 효과와 내용의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전도상적 기술로부터 도상학적 분석, 도상학적 해석으로 이행하는 것은 지시의미로부터 함축의미로 의미작용을 심층 해석하는 것이며, 이를 기호 차원에서 보면 일차성인 표상차원, 이차성인 커뮤니케이션 차원, 삼차성인 의미작용 차원과 관계한다.

3. 전통공간디자인의 도상해석학적 구조와 분석

3.1. 도상해석학의 한국 전통공간디자인 적용논리

(1) 전도상적 기술

전도상적 기술은 하나의 명제에 의해 논리공간에 투영되는 현실을 보는 무매개적인 영상으로, 표상이 대상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완전히 투명한 언어이다. 즉 대상의 형태를 가진 등가물과 치환함으로써 회화적인 기호들을 조작하는 활동으로 '회화적 이미지'에 해당한다.

즉 양식(style)의 문제로서, 이는 디자인의 독특한 표현형식 및 독자적 표현방법의 하나로 이해되는 부분이다. 양식은 특수한 집단이 다른 사회집단과 관련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써 만들어지고 또 그것이 체험되는¹³⁾ 독특한 특징을 지닌 디자인적 형식이다. 특정지역이나 시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정해진 공통형식이나 예술적 취향, 건축물이나 예술품 등에 나타나는 독특한 표현형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도상적 기술은 특정한 시대적·장소적 양식, 즉 시각적인 조형적·물리적 요소에 대한 분석으로 규정한다.

(2) 도상학적 분석

도상학적 분석은 '언어적 이미지' 즉 유형(type)의 문제로서, 여기에서 유형이란 집단이 공유하는 구성을 위한 기본적인 원리이다. 즉 유형은 형태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 형태를 만들어내는 특수형식의 원형, 즉 의식적 공식으로서 '집단표상'의 개념이다.

이 과정에서는 한국전통공간의 현대적 변용을 위한 '유형의 역사'라는 측면에서 한국전통디자인 도상의 유형을 다음의 세

가지로 범주화¹⁴⁾한다.

한 풍토에 나타난 공간적 특징을 공간작법(Field Note)라고 하며, 이것의 의미는 풍토, 환경, 도시, 건축 사이에 숨겨진 공간의 특징을 포착하는 일이다.¹⁵⁾ 이는 특정 풍토의 공통된 특성, 경향, 느낌을 발견하여 객관화하는 시도이다. '풍토성' 도상은 풍토가 가지는 특성에 가장 적합한 지역적 공간구성방식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현대공간과의 공존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관점으로 규정하며, 특정 지역의 뚜렷한 차별성을 지니는 독자성으로 분류한다.

'민속성' 도상은 민족문화 고유성의 회복이라는 면에서 현대 건축이 가지지 못하는 고유의 구조와 방법을 재발견하고 전통적 방식이 보여주는 기본 개념을 로컬디자인개념으로 재통합하려는 시도로 본다.

'전통성' 도상은 현대 도시공간개념으로의 디자인적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창조적인 디자인 방법론의 발견으로 규정한다. 이것이 민속적 도상과 구별되는 점은 반복적 재생의 차원을 넘어선 현대성의 연장과 지역성 초월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상학적 분석은 공간적 인자, 즉 공간구성작법에 대한 분석으로 규정한다.

(3) 도상학적 해석

도상해석학에서 이미지의 개념은 선형적 구조의 이미지로서, 회화적 다품이나 인상 이상의 어떤 은유적 공간에 속한 공시적 구조로서 지적·정서적 복합물인 '심적 이미지'의 개념이다.

이러한 심적 이미지는 독자의 상상력으로 현재 시각적으로 전달되는 것 이상의 공간과의 교감을 형성할 수 있는, 상징적·미적 의식의 흐름을 주도하는 '집단적 무의식'의 관점을 형성한다. 본 과정에서는 독자가 텍스트의 의미구조와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내는 한국 전통공간디자인의 해석학적 시각을 의미의 '우의성', '이위성', '잠재성'¹⁶⁾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해석학적 사유는 표상들의 1차 의미가 아닌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2차 의미의 해독을 목표로 한다. 해석학적 사유에 있어 상징은 寓意的이다. 우의성이란 추상적인 개념을 다른 구체적인 대상을 매개로 표현하는 문학형식으로, 상징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중층의미(다원결정)를 지니는 언어적 표현이다.

이위성이란 하나의 기표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 이상의 이질

14) 유형은 선형적으로 규약화된 형식과 원리 및 수법의 문제로서 디자인 문제에 접근하는 작가의 태도에 관계한다. 유형의 분류체계는 분석대상의 그룹핑에 따라 융통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한다.

15) 편산화준, 도시탐험-성의 체험, 국제, 1991, p.4

16) 베르그송의 생성철학에서 질적 복수성을 띠고 있는 존재를 다양체라고 한다. 이러한 다양체의 복수성은 하나하나가 불연속적으로 병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침투적으로 존재한다. 이정우, 사건의 철학, 철학아카데미, 2003, pp.216-217, 도상해석학에서 형태의 의미는 구조화된 상징적 다양체를 전제한다. 우의성, 이위성, 잠재성은 코드화된 구조로서 집단 무의식의 상징형식으로 다양체적 성질을 함유한다.

12) 김형효, 구조주의 사유체계와 사상, 인간사랑, 2008, pp.636-637 참조

13) 존 A. 워커, 디자인의 역사, 정진국 역, 까치, 1995, p.225

성을 뜻한다. 해석학에 있어서는 한 기표란 언제나 복수적 평면들-그 안에서 의미가 일정한 방식으로 부여되는 각각의 의미론적 구조를 지니는-의 교차선상에 존재하며 이것이 의미의 多價性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언어는 동시에 복수적인 준거평면들을 갖게 된다.¹⁷⁾

잠재성이란 현실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완성된 상태로 내속해 있는 것으로, 특수한 시공간적 조건 하에서 전개되는 구조적 공간에 내재하는 잠재적 공존이다. 여기에서 시공간적 조건이란 상징적 요소들의 재구성을 통해 인지되는 계열체적 관계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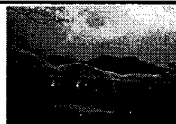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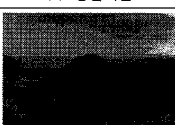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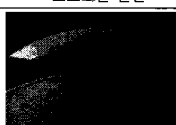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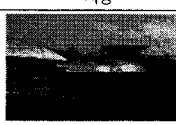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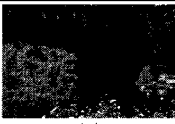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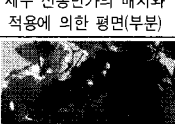



해석학적 사유란 이와 같이 상징의 이중적 의미, 수직적 깊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의 다원결정을 기반으로 '복수적 의미의 두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언어의 다의성은 '애매함'이 아닌 '풍요로움'을 뜻한다.²⁰⁾ 본 연구에서는 도상학적 해석을 공간에 내포된 상징적 의미의 정신적 요소에 대한 해석으로 규정한다.

3.2. 한국 전통공간디자인의 도상해석학적 분석

이미지는 사물이 보이는 방식 혹은 사물이 본질적으로 무엇인가의 직접적 轉寫로서 자신을 숨기는 일종의 글쓰기며 일종의 그래픽기호이다.²¹⁾ 도상해석학에서 중요한 것은 이미지란 무엇

<표 2> 포도호텔(설계: 이타미 준, 2001)의 도상해석학적 분석

해석행위	해석원리	이미지		분석내용
		원형	창조적 환상	
전도상징 기술	제주마을	 제주 성읍마을	 포도호텔 전면	제주민가의 전체적인 외관의 특징은 새를 이은 낮은 납작한 유선형의 초가와 바람을 막기 위해 건물을 둘러싼 현무암의 폐쇄적 외벽과 담장, 그리고 거센 바람에 대비해 가능한 한 낮은 집의 높이이다. 배치방식은 마당을 중심으로 철저한 별동배치형식이다. 포도호텔은 건물의 배치에서 제주 전통민가의 맥락적 모델을 형성한다. 바람을 막기 위한 쌓기, 주위보다 낮은 레벨 차의 이용, 부정형의 흐름에서 작은 취락을 형성, 민가의 친근한 도터브를 이입함으로써 제주 속의 제주를 표상한다.
도상학적 분석	풍토성	 한라산의 능선과 오름	 지붕	경관적 요소 능선이 중첩된 산, 또는 겹쳐진 구름을 형상화한 수평성과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한 하나의 곡면으로 이어진 나지막한 지붕선을 이룬다. 제주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는 작은 언덕들이 모여 있는 듯한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부드러움과 생동감, 그리고 진정한 제주적인 감성에 대한 진지한 탐색과 직관을 부여한다.
		 올래	 우렁	재료적 요소 지방 고유의 재료는 그 지방의 기후적 풍토적 조건에 순응하는 토착성에 의해 지역의 텍스처를 형성한다. 포도호텔은 기후환경의 토속적인 물리적 컨텍스트에 적절히 반응하도록 돌, 흙, 나무 등 지역고유의 소재에 기반하고 있다. 로비는 제주식으로 마감했으며 현무암을 있는 그대로 쌓은 외장 마감을 통해 돌로 통합된 소박한 토양적 특성을 살리고 있다.
		 안뒤	 유리중정 호텔 안뒤	공간조직적 요소 축의 위계성, 고저 차이 등 땅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수용한 공간배치에서 좌와 좌의 관계를 이루며, 실내공간과 외부공간과의 상호 관입적 관계를 형성한다. 호텔 중심에 원형중정을 만들어 제주마을의 마당을 도입함으로써 자연의 빛기둥을 연출하고 빛의 자양분과 자연풍광을 내부로 끌어들이는 공간구성을 시도하여 제주의 공간조직을 내부로 이입한다.
도상학적 해석	우의성	 제주 전통민가의 배치와 적용에 의한 평면(부분)	 포도호텔 전체평면도	제주민가의 은유 전체평면을 구성하는 설계개념으로 제주민가가 지니는 공간흐름, 즉 올래(도.입부)-마당(발전부)-안뒤(종결부) ¹⁸⁾ 라는 리듬의 독특한 공간구성을 차용하면서 부분적인 단위구성에서 제주민가의 배치유형 ¹⁹⁾ 인 두 거러 집과 세 거러 집이 중정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모이고 흩어져 있는 형식을 취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주민가의 작은 마을을 형상화하여 지역의 토속성을 나타내고 자연의 거친 에너지와 원시적 감성을 회복하여 대지와 공존하고 환경과 대화하는 인간-지역 간의 조화로운 맥락적 결함을 은유한다.
		 포도넝쿨	 전경	포도넝쿨의 은유 지형에 동화하는 배치로서 포도라는 자연발생적 식물의 모습을 전체 건축물의 조닝과 축의 형성으로 자리 잡게 하고, 지역에 순응하는 형태에 의해 주변의 자연을 건축적 감흥의 적극적인 경관으로 변환시킨다. 논리보다는 직감에 의존하여 넘실대는 바다물결, 흘러가는 구름 등을 동시에 은유함으로써 제주의 지역적 정서와 문화적 메시지를 함축한다.
		 제주해안	 외부환경	바닷바람의 은유 제주의 바닷바람을 관소리 리듬의 본질인 연속과 불연속선으로 상징화하여 공간의 에워싸임을 형성함으로써 바람이 만들어낸 형태를 은유한다. 이는 환경과 인간 상호간의 심리적 연속체계로 상징화한 하나의 사유이자 시적인 창조적 환상이며, 자연과의 침묵의 대화와 자연의 이식을 묵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17)異位性이라는 말은 等位性의 반대말로 사용된다. 그레마스(A. J. Greimas)에 의하면, 등위성이란 하나의 담론을 하나의 의미작용 전체로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한 의미론적 단위의 특징적 성격으로 정의된다. 이정우, 미셀 푸코의 담론공간 개념과 주체의 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pp.142-143

18)올래란 주거 진입의 셋거리로서, 올래가 끝나는 곳인 올래목은 곧지 않고 항상 구부러져 있는데 이는 세찬바람을 막고 출입하는 사람으로부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진입공간에 변화를 줌으로써 일종의 전환의 기능을 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안뒤란 안거리 뒤쪽에 담을 쌓아서 휴식

을 제공하는 명상의 공간, 외부와의 시선이 차단되어 타인에게 비공개되는 신비화된 공간으로 주택의 陰의 공간이다. 강연진, 전통민가를 중심으로 살펴본 제주도 건축의 지역성과 그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p.18-19 참조

19)제주민가의 배치유형은 채수에 따라 외거리 집, 두거리 집, 세거리 집, 네거리 집으로, 또한 안거리(안채), 밖거리(바깥채) 등의 채의 배치형태에 따라 모로얌은 형(ㄱ자형 배치), 마주얌은 형(일렬형 배치)으로 분류한다.

20)이정우, 미셀 푸코의 담론공간 개념과 주체의 문제,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pp.141-142 참조

인가가 아니라 이미지와 이미지를 산출하는 상상력을 어떻게 신뢰와 존중의 가치 있는 힘으로 변용하는가이다.²²⁾ 까밀로 지떼(Camillo Sitte)는 「예술적 도시계획에 관한 한 건축가의 기록과 반영(An Architects Notes and Reflection upon Artistic City Planning)」이라는 저서에서 고대, 중세 도시공간에 공통으로 내재하는 도시요소간의 기본원리를 찾아내어 배치, 비례, 규모, 목적 등에 관한 객관적 원칙을 탐구하고 이에 기초하여 공간구성의 모델을 창작했다.²³⁾ 따라서 전통의 역사적 과정들을 투시함으로써 우리의 주관적 변용 및 해석행위는 확장될 수 있다. 지역의 문화이미지를 도시 아이덴티티와 연결시켜 도시마케팅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은 이러한 방법론 중 하나이다. 디자인

방법론상으로 볼 때 이것은 시나리오의 제작, 즉 공간연출의 스토리 구성에 속한다. 즉 장소적·시대적 특징을 배경으로 공간의 성격과 이용자를 분석하고 지역적 원형을 창조적 환상으로 재창조하는 작업이다. 이것은 장소나 도시의 상징, 특정 시대의 연대적 서술, 또는 역사적 사건을 주제로 접근할 수 있다.

포도호텔은 양식의 측면에서는 제주의 지역적 유기체로서 '제주마을'을, 유형의 측면에서는 오랜 세월 지역적 조건에 의해 형성된 자취로서 거칠고 투박하며 솔직한 시간의 색조에 의해 차별화된 감각적 측면을 '풍토성'으로 유형화한다. 상징의 측면에서는 제주민가와 포도넝쿨, 그리고 바닷바람이라는 세가지의 은유와 묵시라는 관점에서 '우의성'으로 각각 전도상학

<표 3> 라궁(설계: 구가도시건축, 2007)의 도상해석학적 분석

해석행위	해석원리	이미지		분석내용
		원형	창조적 환상	
전도상적 기술	신라의 궁전	 안압지와 동궁의 복원모형	 라궁 전경	안압지는 경주평야의 중심에 인공적으로 만든 왕궁의 유흥장인 동시에 왕세자가 거처했던 태자궁이기도 하다. ²⁴⁾ 안압지와 주변건물은 통일신라의 대표적 궁전이다. 라궁은 역사적 도시의 맥락성과 공간조직의 전형성을 지역문화와 연결하여 문화와 전통, 환경과의 조화 및 시각적 연속성을 도입하고 장소성과 문화적 동일성을 부여한 디자인이다. 라궁의 호수와 건축과의 형태적 특성은 안압지와 동궁과의 형태적 유사성으로 인해 시각적 도상성을 부여하고 있다.
도상학적 분석	민속성	 환백당 (출전: 김봉렬, <i>읽과 삶의 공간</i> , p.87, p.90)	 회랑	설계기법 및 공간짜임 한옥은 간과 채로 이루어져 궁극적으로 부재를 미리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화된 조립식건축이다. 테크놀로지의 진보는 디자이너로 하여금 옛 재료와 기법을 재해석하게 하고 독자적인 생산체계를 고안하도록 자극한다. 표준화된 소재는 목공사의 기계화에 의해 대량생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그렇게 해서 전통적인 목구조방식으로 구축되면서도 고대의 수공품은 산업화되어 현대적 기법으로 창출될 수 있다.
		 관가정 평면 (출전: 김봉렬, <i>시대를 담은 그릇</i> , p.283)	 중정	공간조직적 요소 라궁은 공간조직에 있어 은돌과 마루와 마당으로 구성된 한옥의 기본조직을 갖추고 있음과 동시에 호텔이라는 프로그램을 수용하고 있는 한옥호텔로서, 익명의 여러 가족이 머무르는 숙박시설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연립한옥'의 공간조직을 도입하여 전통한옥의 요소를 목적과 전략에 맞게 조직화하고 있다. ²⁵⁾ 목재의 가옥과 독립된 노천온천으로 이루어진 객실유닛은 마당형, 누마루형, 2가지를 집축한 복합형의 4중류로 구성된다. 공간조직의 특성을 'c'자형 한옥과 연립한옥에서 인용하여 누마루와 안마당의 긴장된 구성으로 전략적인 한옥구성을 실현하고, 독립성과 독자적 고유기능을 가진 외부공간이며 실내와 상호관계를 조절하는 적극적공간인 마당을 도입하여 시선을 조절한다. 전통주거의 마당이 우리의 심리공간인 '비워져있는 내부'로 수용되면서 편안한 폐쇄감을 주는 공간감에 근거하여 마당에 목초를 설치, 거실과 목욕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관가정 전경	 누마루형 유닛	
도상학적 해석	이위성	 안압지 복원정비 평면도 (출전: 김봉렬, <i>시대를 담은 그릇</i> , p.76)	 라궁 전체평면도(출전: 한옥의 현대화 심포지움-경주한옥호텔 라궁의 사례)	복합구성 안압지는 직선과 곡선, 인공과 자연, 육지와 물, 건축과 조경의 통합적 전체를 이룬 신라의 중요한 예술정신의 반영이다. 호수의 서쪽과 남쪽에서 발굴된 건물터들은 몇 개의 큰 건물들과 그들을 연결한 회랑터들이다. ²⁶⁾ 라궁 또한 회랑으로 감싼 객실들이 연결되면서 'c'자 구조를 자연스럽게 만들고 그 내부는 빈 공간으로 남김으로써 고풍함과 개방성을 부여하고 있다. 부분과 전체를 지배하는 반복적 질서와 균질성을 통해 영속성의 초월적 효과와 일상적 느낌을 동시에 내포함으로써, 전통가옥에 웰빙형 콘텐츠를 부가한 궁궐의 휴식처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서 복합적 구성을 이룬다.
		 안압지	 중랑마당 영역	이질성 현대적 기법과 과거의 이미지, 역사적 건축물과의 관계와 주위환경과의 조화 및 도시의 독특한 문화와 정취를 부여함으로써 이질적인 건축적 특성을 하나로 묶는 융통성과 창조적 상상력으로 살아있는 역사를 현대의 문화에 편입시킨다. 시공을 초월한 체험형 테마파크로서 통일신라의 화려한 문화를 상징함으로써 역사와 환상을 조율하고, 건축공간과 형태의 본질에서 나오는 감동과 체험을 통해 인간의 감성을 고양해주는 미적차원을 강조하고 융합공간으로의 여행을 제안한다.

21)W.J.T. Mitchell, *Icon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p.30

22)W.J.T. Mitchell, op. cit., p.30 참조

23)윤정섭, *도시계획사*, 건우사, 1984, p.198

24)김봉렬, *시대를 담은 그릇*, 돌베개, 2006, p.77

25)송인호, *한옥의 현대화 심포지움-경주한옥호텔 라궁의 사례*, 서울대학교 건축사연구소, 2007. 4, pp.40-41 참조

26)김봉렬, op. cit., pp.73-77 참조

적 기술, 도상학적 분석, 도상학적 해석을 시도한다.<표 2>

역사적 장소일 경우 그것의 특정모티브를 공간디자인에 반영시킴으로써 지역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새로운 장소성을 제시할 수 있다. 라궁은 양식의 측면에서는 경주의 시대적·장소적 테마로 '신라 궁전'의 표상으로서, 유형의 측면에서는 한옥의 공간조직을 도입하여 전략화한 것으로부터 '민속성'으로 유형화한다. 민속성은 오랜 세월 민족적 기질과 사회적 조건에 의해 수정되어온 문화적 조형기호로서 여기에서는 한국 전통주거의 공통적 기본성격 및 구성원리로 한정한다. 상징의 측면에서는 안압지의 역사적 의미와 구조, 그리고 한옥의 보편적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이식하고 역사와 환상을 창조적으로 조율한다는 측면에서 복합구성과 이질성의 '이위성'으로 각각 세 단계의 분석을 시도한다.<표 3>

인터컨티넨탈 호텔은 양식의 측면에서 서울 '경복궁'의 표상

으로, 유형의 측면에서는 전통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의 보편적 공간요소의 속성인 '전통성'으로, 상징의 측면에서는 국제주의에 부응한 전통의 현대화 실현으로 전통과 과거를 잠재시켜 상징적 생활세계인 궁궐과 그 안의 삶을 사건화 한다는 측면에서 '잠재성'으로 각각 세 단계의 분석을 시도한다.<표 4>

레비스트로스(C. Levi Strauss)의 내재적 구조는 문화 상부 구조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파노프스키가 말한 내재적 의미와 비슷하다. 그러나 레비스트로스의 내면구조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통시적으로 작용하는 절대불변의 구조인 반면, 파노프스키의 내재적 의미는 역사에서 중요한 시기적 분기점을 지나면서 변화한다.²⁹⁾ 즉 구조주의자들은 스스로 변형되지만 여전히 동일한 구조를 유지하는 체계들의 기능에 관심을 두는 반면, 역사학자들은 그런 체계들이 어떻게 생성되고 스스로를 재생하며 변화하는지에 관심을 둔다.³⁰⁾

<표 4> 인터컨티넨탈호텔(설계: Rifenberg & Rikrit Architects-Interiors Designers, 1989)의 도상해석학적 분석

해석행위	해석원리	이미지				분석내용
		원형		창조적 환상		
전도상적 기술	서울의 궁궐					근정전은 조선시대 정궁인 경복궁의 중심 건물로, 건물 안쪽은 아래-위가 트인 통층구조로 되어있다. 근정전에서 근정문에 이르는 길 좌우로는 복도 건물인 행각이 연결되어 근정전을 둘러싸고 있다. 인터컨티넨탈의 로비와 로비라운지는 근정문과 근정전의 관계와 상응한 공간, 색채, 문양 등 모든 시각적 형상에서 도상적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인터컨티넨탈호텔은 서울 경복궁의 내조와 연조의 건축적 컨텍스트를 공간디자인 텍스트에 인용하고 있다. 즉 국제회의, 비즈니스, 연회, 숙박 등의 컨디션 호텔의 기능을 궁궐에서 일어나는 행위구조에 삽입시키는 라이프스타일의 동질성과 이질성의 창조로서 디자인을 제시한다. ²⁷⁾
					색채적 요소 한국전통색채는 오행설에 대응하여 靑, 赤, 黃, 黑, 白 오색의 물감을 방위의 중앙과 사방을 기본으로 삼고 그사이 8방과 16방의 間色을 설정하였다. 단청은 건축에 위엄을 주는 의장적 측면으로 건물의 골격과 권위에 따라 색채를 달리 사용하였으나, 단청의 강렬한 대비와 조화의 배색특성은 전통색채의 대표적 표상으로 오늘날에도 작용한다.	
					재료적 요소 전통공간에서 재료는 마감재임과 동시에 구조재로서 사용되었다. 전통재료들-목재, 지재, 석재-은 자연을 가공하여 얻은 것으로 자연물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다. 재료의 원형적 요소를 구조체적 역할로부터 해방하여 현대적 기능에 적합하게 변용함으로써 시각적·미적으로 차분하고 은근한 멋스러움과 전통성을 표현하는 소재로 사용된다.	
					문양적 요소 전통문양은 특정사물의 연상 작용에 의해 우리민족의 집단적 가치와 감정이 표상된 시각예술이라 할 수 있다. 운문은 구름을 양식화한 것으로 위엄, 신비성, 속세를 벗어난 풍류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장식에 사용된 운문은 그 완만한 곡선으로 인하여 장식성을 표출하여 현대적인 공간에 부드럽게 조화한다.	
도상학적 분석	전통성				장식적 요소 산수도는 산수 樹石 등 자연의 경치를 표현한 것으로 풍물로서 누각·풍속 등이 포함되기도 하여, 재앙을 면하고 장수와 수목강녕을 기원하고 자연을 사색하는 염원을 내포한다. 전통건축에서 꽃담장식은 자연과 조화하고 동반하고자 하는 우리 심성을 화면을 통해 회화적으로 표현하였는데, 그 형태가 다양하고 내용도 풍부하여 현대공간에 장식적 요소로 도입될 수 있다.	
					공간적 요소 조선조 건축의 특성은 가구식구조로서 기둥과 도리, 보로써 뼈대를 구성하고 그 위에 공포나 대공을 얹어 서까래를 받는 기본 틀을 형성한다. 이러한 목구조는 구조 자체가 형태를 부여함으로써 그 독특한 형식은 구조적·장식적 요소로 도입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오늘날의 건축방식과 결합하고 연등천정과 우물천정을 조합한 디자인으로 한국의 구조미를 현대적 이미지로 재창조한다.	
		국제주의에 부응한 전통의 현대화 실현으로 과거와 현재적 가치를 동시에 포함함으로써 공간을 기억의 장소로 합리화하고 과거를 잠재시킨다. 문화적 관성의 침투와 중첩을 통해 전통의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과거와 현재, 오래됨과 새로움, 전통과 현대라는 이중성이 합리적으로 병존케 함으로써 현실을 구성하는 구조적 공간 내에서 상징적 요소들이 변별적 관계를 형성한다. 역사적 과정 속에서의 아이디어와 개념의 변화를 포함함으로써, 여기에서 호텔공간은 상징적 세계이며 해석에 의해 이러한 공간언어의 상관자인 궁궐과 그 안의 삶을 다시 현존시킨다. ²⁸⁾ 이것은 공간성을 잠재적 '사건'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며 공간적 존재로서 그 안에서의 체험을 재해석하여 오래된 시간의 궤적을 갖는 환상적인 공간-시간여행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도상학적 해석	잠재성					

27)박경애, 한국전통공간디자인 텍스트의 지시작용 해석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7. 8, pp.36-37 참조

28)Ibid, p.37 참조

29)신준형, 파노프스키와 뒤러, 시공사, 2004, pp.47-49 참조

위의 세 호텔은 기능이나 규모, 성격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자리에 논한 것은 지역적 특수성을 '한국성'으로 전체 프로그램화했다는 공통점 때문이다. 따라서 각각의 공간해법은 상이하다. 이들은 재현과 추상의 논점에서는 극단적인 사례일 수도 있다. 포도호텔은 오래, 마당, 안뒤, 등 외부공간 요소가 내부공간어휘로 변안됨으로써 내외부공간은 연속적으로 흐른다. 반면 인터컨티넨탈호텔은 역사어휘가 새로운 공간어휘로 내부공간 안에 수용된 하나의 완결체로서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세계의 시공간적 전환이 이루어진다. 또한 라궁의 경우는 과거 원형 감성단위의 직설적 변안으로 생활 체험적 대상이며 물리적 축조기법의 복원에 가깝다. 이러한 방식들은 독립된 유기체로서 공간이 현대적 기능 및 도시적 맥락에 적응하는 현실적 대안이기도 하다. 이러한 면에서 본 연구는 이들 각각을 비평이 아닌 방법론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보고, 해법의 공약수를 도상해석학에서 도출한 것이다.

4. 결론

모든 인류 집단은 사회문화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의 복합체로서 자신들의 공간을 구조화해왔다. 공간디자인에 있어 한국성의 개념을 원형과 창조적 환상이라는 시각에서 도상해석학적 관점으로 고찰한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공간디자인은 전통조형요소들의 본질과 특정 시대와 장소가 부여하는 가치들이라는 복합적 기록으로 작용함으로써 집단적 공유의미를 중첩적으로 발생한다. 도상해석학은 한국 전통공간디자인에 있어 모티브의 세계, 문헌학적 자료의 지식, 작품의 개성과 세계관의 표현이라는 단계적 심화를 내포함으로써 '시대의지'와 '예술의지'라는 중층구도를 작가의 차별화된 시각으로 한 화폭에 담을 수 있게 하는 합리적인 방법론이자 해석의 도구이다.

둘째, 도상해석학은 이미지가 일종의 시각적 표상, 지각적 유형의 표상, 그리고 심적 표상으로서 회화적인 것의 비유적 확장이라는 것을 전제한다. 따라서 도상해석학에 의한 디자인 방법론은 집단의식과 보편적인 문화상으로 존재하는 전통공간의 요소를 한국적 공간문화원형의 양식적, 유형적, 상징적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실천적 이론창출과 함께 해석학적 지원성 설계지표에 기여하는 현실적 유용성을 지닌다.

셋째, 공간디자인언어가 지닌 표상의미를 파악하는 일은 지각, 회상, 그리고 사고간의 기억조직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미지텍스트의 표상측면과 해석측면 사이의 상호번역에 있어 도상해석학은 한국 전통공간디자인(기표와 기의) 구조의 공시적·통시적 관계를 하나의 모델로 논리적 공간 내에

위치하게 하는 관념연합의 메커니즘-상관적 변별의 구조적·계열적 사유방식에 의한 생성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론은 전통도입의 개인적인 방정식 또는 사변적 사유로부터 벗어나, 집단표상과 창조적 환상 체계를 수용하여 구조와 주체라는 과학적 영역과 철학적 영역을 통합한 상보적 디자인생성체계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역사·문화유산들을 통시적·공시적 관점에서 분류하고 분석하여 역사적 과정들이 투시됨으로써, 현재의 내러티브로 재구성되는 창조적 공간이미지를 창출하고 우리의 지역적 고유요소들을 자원화 하는 대책의 하나로서 이론과 적용이라는 면에서 학문적 가치를 지닌다.

참고문헌

1. 김봉렬, 한국건축이야기1-시대를 담은 그릇, 돌베개, 2006
2. 김형효, 구조주의 사유체계와 사상, 인간사랑, 2008
3. 새로운 한옥을 위한 건축인 모임, 한옥에 살어리랏다, 돌베개, 2007
4. 신영훈, 한국의 고궁, 한옥문화, 2005
5. 신준형, 파노프스키와 뒤러, 시공아트, 2004
6. 이정우, 사건의 철학, 철학아카데미, 2003
7. 임석재, 한국현대건축비평, 예경, 1998
8. 최기숙, 환상,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
9. 한필원, 한국의 전통마을을 가다, 북로드, 2004
10.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실내건축을 위한 색채디자인, 기문당, 2000
11. Erwin Panofsky, Studies in iconology : humanistic themes in the art of the Renaissance, Boulder : Westview Press, 1972
12. Michael Toolan, Language, text and context : essays in stylistics, London : Routledge, 1992
13. Pavio, Allan, Mental Representations: A Dual Coding Approac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14. Pierre Guiraud, Semiology, translated by George Gross. London : Routledge & K. Paul, 1975
15. W.J.T. Mitchell, Icon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16. W.J.T. Mitchell, Picture Theo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17. 에케하르트 케머링, 도상학과 도상해석학, 이한순 외 역, 사계절, 1997
18. C.G. 융, 원형과 무의식, 숲, 2002
19. 존 A. 위커, 디자인의 역사, 정진국 역, 까치, 1995
20. Y. 바진, 현대예술철학의 흐름, 오병남·윤자정 역, 예전사, 1996
21. 이광진, 건축의 지역성과 그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22. 이정우, 미셀 푸코의 담론공간 개념과 주체의 문제,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23. 박경애, 한국전통공간디자인 텍스트의 지시작용 해석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7. 8
24. 장미진, 도상해석학의 문제: 파노프스키와 제들라이어의 이론을 중심으로, 미술사학2, 미술사학연구회, 1990
25. 허미선·조경진, 정원작품의 해석방법으로서 도상학과 도상해석학, 한국정원학회지, 15권, 2호, 1997. 1
26. 한옥의 현대화 심포지움-경주한옥호텔 라궁의 사례, 서울대학교 건축사연구실, 2007. 4
27. 건축과 환경 0205, NO.213
28. 건축문화, 안압지와 복원건물, 1986.3

<접수 : 2008. 10. 29>

30) 존 A. 위커, 디자인의 역사, 정진국 역, 까치, 1995, p.191